

# 중국방노협회 Study tour를 마치고



1995년도부터 시작되어

온 한-중간 결핵관계자 친선교류사업의 결실로 격년으로 실시되어온 결핵 관리 담당자들의 상호방문 Study tour가 2006년 이후 중국 내정문제 등에 의해 중단되었었다. 그 후 양국 간 친선교류사업의 중요한 의미와 성과를 되살리고자 2010년 한국 방문단의 중국방노협회 Study tour를 시작으로 재개되었다. 이번 방문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 필자는 방문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 동행했던 최성원 결핵연구원 세균검사과장, 주영태 중앙지회 임상검사센터장, 송유권 남부지회 운영지원과장을 대신하여 지면을 통해 협회의 배려에 대해 감사드리며, 금년에 방문할 중국 측 결핵관계자에 대한 우리협회의 준비자세와 금번 방문단 이후에 중국을 방문하게 될 직원들을 위해 즐겁고 유익했던 2010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4박5일 간의 중국방문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등소평 중석의 취임 이후 강력한 중앙통제 계획경제와 과감한 자본주의적 요소의 결합으로 무섭게 성장하여 21세기 들어서 세계경제의 떠오르는 태양으로 자리매김하

고 있으며, 미국과 더불어 G2로 불릴 정도의 세계경제의 핵심역할을 하며 향후 20년 내에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 나라 중국은 과연 국가결핵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못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도착한 곳은 북경의 서우드(首都) 국제공항.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제3청사까지 확충하고 용의 형상을 본뒀다는 서우드 국제공항의 규모는 13억 인구나 엄청난 국토면적을 증명하듯 무척이나 방대했다. 출입국 심사대에서 바라보는 까마득한 천정에는 세계 각국의 언어로 된 환영인사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는데, 그 중 가장 앞 쪽에 논어의 학이편에 나오는 “朋友自遠訪來不亦樂乎”(먼 곳에서 벗이 찾아오니 어찌 즐겁지 않으랴)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중국방노협회의 환대와 추억을 가득 안고 북경을 떠나오던 날 다시 그 플래카드를 보았을 때는 그 말의 의미를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

첫날인 만큼 특별한 일정 없이 이번 방문의 중국 측 코디네이터인 중국질병예방센터(China CDC) 국제협력과의 리밍 씨와 통역을 자원한 베이징 시 약품검사소 우메이시양 씨의 마중으로 점심식사 후 인근의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인 나오차오를 둘러 4박5일간 묵게 될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이 호텔은 북경의과대학 부속병원 인근에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일행은 저녁시간에 호텔에서 개최된 중국방노협회 제10차 전국 회원 대표자대회 만찬자리에 초대되어 새로 선출된 임원진(회장 왕시엔수, 부회장 완리아)과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중국측의 뜻 깊은 행사와 맞물려 우리의 숙소가 정해진 것이다.

둘째 날, 가벼운 아침식사 후 한국방문단은 베이징 시 외곽으로 새롭게 신축 이전한 중국질병예방센터를 방문하였고, 그 곳에서 결핵실험실 완강린 박사의 안내로 실험실 이곳저곳을 견학하였는데, 견학 내내 시설에 대한 자랑과 자부심이 묻어났다. 동행한 최성원 과장과 주영태 과장은 분야의 전문가답게 여러 가지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았다. 이후 회의실로 옮겨 결핵실험실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상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였고, 결핵연구와 관련해서 결핵병원, 국가과학원, 대학연구소, CDC가 연계된 연구 네트워크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질병예방센터 결핵실험실에서는 검사만을 실시한다는 점과 중국내 MDR 환자가 12만 명에 이르고 있고, 인터페론 감마테스트의 경우 상하이 시에서 소규모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 밖에 BSL-3 Level 구축계획과 약제감수성검사 그리고 분자생물학검사 등 전반

적으로 한국과 비교되는 Laboratory 운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후, 그 곳에서 멀지 않은 만리장성을 방문 후 저녁 무렵 베이징 숙소로 향하였다.

셋째 날, 한국방문 경험자들이 많은 베이징 시 결핵관리연구소를 방문하였는데, 흥평 소장을 비롯해 최성원 과장과 호형호제하는 왕수민 중앙실험실 실장과 무문청 부소장, 왕성화 서기의 열렬한 환대를 받으며 가효신 부소장의 설명으로 북경시 결핵관리사업에 대해 브리핑을 청취하고 서로의 경험에 대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중국은 결핵관리의 당면과제로 결핵감염, 결핵환자수, 신환자수, 사망, 내성환자, 무의촌(농촌)이 많다는 6가지를 결핵관리의 장애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유동인구(무호적자/취약계층), 내성환자, 결핵/HIV 감염환자에 대한 3대 핵심 결핵관리 과제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이 처해 있는 국가결핵관리의 공통된 문제이고, 국가결핵관리를 성공적으로 이끈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연대와 공감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중국의 수도인 북경시 결핵예방관리 사업수행에 있어 처한 특수한 환경은 공공위생 관리가 강하게 요구되는 곳이며, 청년들이 많은 학교들이 운집해 있고, 유동인구가 가장 많다는 것이다. 그 해결방안으로 결핵환자 정보감시체계 확립, 유동인구(취약계층)의 결핵관리, 학교결핵관리, 다제내성환자관리에 핵심역량을 쏟고 있다는 대목에서는 우리 방문단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결핵퇴치 비전 2020을 목표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고 상호 관심사를 질의답변 형식으로 교환하였다.

그리고 오후로 이어지는 결핵통제 및 예방사업의 경험교류를 위한 중국방노협회와의 워크샵에서 방문 첫날 새로 선출되어 인사를 나누었던 완리아 부회장과 장찌엔영 부비서장으로부터 중국 중앙정부도 결핵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세계적인 각종 기금을 이용한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데 그 중심에 1933년 창립되어 중국 결핵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국방노협회가 있다는 자긍심과 2000년도 인구 10만 명당 122명으로 유병률을 낮추는 데 체계적인 방역망 및 자치구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지만 DOTS 치료를 원칙적으로 적용하여 높은 치료성공률이 기여한 바 크다는 이야기를 전할 때는 중국 결핵퇴치의 희망적인 기대감을 보여주었다.

넷째 날, 중국 측에서는 우리 방문단의 연일 계속되는 Study tour의 피로감을 의식한 듯 북경 시내 투어 일정이 잡혀 있었다. 청나라 황제 강희제의 저택으로 황제를 두 번이나 배출시킨 곳을 격상하고자 붉은색 담과 황금색 유리기와로 전체를 꾸몄고, 강



희제의 아들이 티벳불교를 믿어 사후에 티벳불교식으로 예불을 드린 것을 계기로 1744년 정식으로 티벳불교사원이 된 용허궁(雍和宮)을 비롯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궁궐이라는 명청왕조의 자금성(Forbidden City)을 둘러보았다.

다섯째 날, 짧지 않을 것 같은

방문 일정이 끝나고 어느덧 귀국일이 되어 북경 서우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마지막 스케줄로 중국CDC의 결핵임상센터를 방문하여 책임자인 리리양 박사와 미핑링 그리고 두지안 박사를 만나 결핵임상센터의 운영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결핵병원시설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1981년 설립된 센터는 임상과 연구기술을 지원하고 PPM/DOTS 사업 및 교육훈련, 건강증진, 결핵전문석사와 의학박사 학위수여기관, 결핵 및 폐암 임상연구 중추기구로서의 일들을 하고 있고, 동 센터를 중심으로 국가임상실험실, WHO 국제협력, 국내학회 등과 연계하여 유기적인 네트워크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었다. 인접한 병원은 533병상 규모로써 결핵환자는 300병상을 운영하고 1,000명의 인원이 환자 진료 및 치료 그리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데, 연 3,000명을 입원 치료하고, 진료연인원은 70,000명에 달한다고. 친절한 안내에 따라 함께 병원시설 이곳저곳을 견학한 후 아쉬움을 뒤로한 채 우리 방문단은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4박 5일에 걸친 한중 결핵관계자 친선교류 일정은 여러모로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으며, 우리방문단에게 '결핵퇴치'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진 동료애를 느끼게 했다. 그리고 결핵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개인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 필요한 방안과 기술이라면 적극적으로 학습하며 한국을 존경의 대상으로서 각별히 대접했던 중국 결핵관계자분들을 통해 그동안 한중 결핵관계자들이 서로의 결핵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함께 노력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중국방문 중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던 많은 중국 관계자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올해 예정된 중국방문단의 한국 Study tour에서 한중간의 친선교류사업이 더욱 심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서로 다름에도 결핵이라는 질병에 의해 하나로 맺어진 한중우의(韓中友誼)가 만고장청(萬古長青)하길 기대해 본다. †